

사과꽃이 온다

Apple blossoms are coming

마가복음 7장 31-37절

-
31.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
 32.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
 33.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
 34.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
 35.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뻗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
 36.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
 37.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
-

1. 32절에 사람들은 각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.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?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.

2. 예수님은 자신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해결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(36절). 왜 그러셨을까요?

* 위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,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며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봅시다.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읽어봅시다.

3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믿음의 문턱에서 종종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.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언제 믿음이 약해졌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눠봅시다.

*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선 이상으로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지만,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.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 신앙이 깊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.

4. 오늘 말씀의 제목이 '사과꽃이 온다' 입니다. 봄에 사과꽃이 핀 자리에 꽃이 지고 사과가 열리게 되는데, 어느 농부들은 사과꽃이 핀다고 하지 않고 사과꽃이 온다고 말을 한답니다. 누군가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사과꽃이 핀다는 말이지요. 그 '보내주시는 분'에 대해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.